

광주·전남 국회의원 88.9% 재산 늘었다

1위 양부남 88억원 신고...정준호 -10억
평균 21억7천만원...1억 이상 증가 12명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서민들의 생활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18명 중 16명(88.9%)의 재산이 지난해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억원 이상 재산이 증가한 의원은 12명에 달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5년 정기 재산 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광주·전남 의원은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으로 총 88억3천893만원이었다.

이어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44억1천843만원, 주철현(여수갑) 의원이 37억2천877만원을 신고해 '상위 3인'으로 집계됐다.

반면, 정준호 의원(광주 북갑)은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10억5천300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에 나선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2억9천983만원, 권항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3억6천42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하위 3인'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21억7천888만원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 폭에서는 안도걸 의원이 한 해 동안 5억8천381만원이 늘어 가장 많았다. 이어 박군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3억7천82만원,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이 3억6천373만원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이 밖에 의원별 증가액은 조계원(여수을) 3억5천882만원, 양부남 3억1100만원, 전진숙(광주 북을) 2억8천610만원,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2억3천822만원, 주철현 1억9천619만원, 김원이(목포) 1억6천554만원, 민형배(광주 광산을) 1억5천614만원, 정진욱(광주 동남갑) 1억4천318만원,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1억1천352만원,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9천132만원, 권항엽 8천870만원, 정준호 7천822만원, 서삼석

●광주·전남 국회의원 재산 신고

성명	재산총액
양부남	88억3천893만원
안도걸	44억1천843만원
주철현	37억2천877만원
박지원	33억6천588만원
이개호	32억5천244만원
박군택	29억7천372만원
조인철	19억8천625만원
민형배	18억3천26만원
문금주	17억6천892만원
서삼석	17억5천696만원
김원이	16억6천886만원
정진욱	16억5천730만원
조계원	12억3천516만원
전진숙	7억6천598만원
김문수	3억8천499만원
권항엽	3억6천429만원
신정훈	2억9천983만원
정준호	-10억5천300만원
1인당 평균 재산 = 21억7천888만원	

(영암·무안·신안) 6천406만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재산이 감소한 의원은 조인철(광주 서구갑)·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 등 2명이다.

조 의원은 혼인한 자녀의 재산액 2억6천232만원이 고지 거부 및 등록제외의 사항으로 분류되면서 전년보다 1천688만원 줄어든 19억8천625만원을 신고했다. 신정훈 의원은 3천281만원 감소한 2억9천983만원을 기록했다.

한편, 국회의원 287명 중 신고 재산 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의원은 국민의힘 안철수(1천257억원)·박덕홍(647억원) 의원으로 전년과 같았다. 이들을 제외한 285명의 평균 신고 재산액은 28억8천730만원으로 집계됐다.

규모별로는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이 97명(33.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88명(28.9%),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47명(16.4%), 100억원 이상 300명(12.5%), 500억원 미만 24명(8.4%) 등이다. /김진수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5월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통과

본회의·국무회의 의결시 올해부터 적용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의결

5월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올해부터 노동절에도 쉴 수 있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5월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하는 내용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행안위는 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 국제물류 특구와 국제금융 특구 조성 등을 골자로 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했다.

법안은 세계 각국과 특례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하도록 하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부산시 특별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상설화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의 법적 기반과 추진 체계 등을 담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행안위를 통과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연대금융 등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의결 전 법안 추진 배경 및 실효성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동진 의원은 "특정 정치세력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그 조직의 효율성, 경쟁력, 자생력이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만단체 지원이 오버랩되는 것이 무리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공익적 헌신을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김병내 남구청장 예비후보 지지 선언 봇물

광주 남구 출신 전·현직 시·구의원들과 남구청 민선 7·8기 퇴직 공직자, 효천지구(SRF 시설) 약취 해결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청년 단체가 2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내 남구청장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전·현직 시·구의원들은 이날 김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을 찾아 "광주·전남 대통합 시대를 맞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아는 우리 의원들은 남구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로 김병내 후보를 강력 지지한다"며 지지 선언문을 발표했다.

남구청 퇴직 공직자들도 "지난 7년간 수많은 성과로 증명된 김병내의 리더십만이 남구의 미래를 가장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효천지구 약취 해결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는 "효천지구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되찾아줄 김 예비후보가 구청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구 청년 리더들(깨시민)은 "창년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남구, 보여주지 못한 청년 정책 아닌 실질적 기회 열어줄 김병내 후보의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변은진기자

민주당 전국농어민총 30일 발대식

문금주 위원장 "농어민 승리 시대 열 것"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6 전국농어민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발대식은 '내란을 넘어 민생의 바다로! 농어

민과 함께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슬로건 아래 정국 혼란을 극복하고 농어촌 현장의 민생을 회복하며 향후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농어민들의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원내대표,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국회 농림



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문금주 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은 "농어촌이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고 민생 중심의 정치를 실현하는 데 농어민위원회가 선봉에 설 것"이라며 "발대식을 기점으로 전국 농어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